한국학연구 제62집 | 193~217쪽 | 2021.8.

‘뚱딴지’의 단어 구조와 사전 뜻풀이 분석

홍석준*

〈차 례〉

1. 서론
2. ‘뚱딴지’의 단어 구조 분석
3. ‘뚱딴지’에 대한 사전 뜻풀이 분석
4. 결론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뚱딴지’의 단어 구조와 사전 뜻풀이를 분석하고, 동음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뚱딴지’는 주로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너무 엉뚱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돼지감자’와 ‘애자(碍子)’를 가리키는 이름으로도 사용된다. 이러한 ‘뚱딴지’의 단어 구조와 동음관계에 대한 국어학적 분석은 찾을 수 없고, 신문 칼럼 몇 편에서 대략적인 분석을 찾을 수 있으나 정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뚱딴지’는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 단일어로 분석했으나, ‘뚱하다’의 어근 ‘뚱’과 접미사 ‘딴지’가 결합한 파생어로 분석된다. ‘딴지’는 ‘X단지’ 단어족의 단어 구조 ‘X+단지’를 ‘X+딴지’로 재분석하여 얻어진 것이다. 사전들에서 ‘뚱딴지’의 의미항목이 변화하는 과정을 검토하면, ‘엉뚱한 사람’을 뜻하는 ‘뚱딴지’가 먼저 있었고 ‘애자(碍子)’와 ‘돼지감자’를 가리키는 ‘뚱딴지’가 나중에 등장한다. ‘애자(碍子)’와 ‘돼지감자’의 속성과 생김새가 ‘뚱딴지’의 속성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들에도 똑같은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것은 속성의 유사성에 근거한 은유가 작용하여 명칭을 차용(借用)한 것이다. 지금은 이 세 ‘뚱딴지’의 의미적 거리가 아주 멀어졌으므로 사전에서도 이들을 동음어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제어] 뚱딴지, 단어 구조, 동음관계, 뚱하다, 사전 뜻풀이, ‘X단지’ 단어족, 재분석, 은유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뚱딴지’의 단어 구조와 이 단어에 대한 사전의 뜻풀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여러 사전에서 ‘뚱딴지’의 뜻풀이를 검토하면서 ‘뚱딴지’의 동음관계도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뚱딴지’를 주로 “뚱딴지같은 소리 하지 마.”라든가 “뚱딴지처럼 그런 말을 왜 꺼내니?”와 같은 문장 속에서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너무 엉뚱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런데 ‘뚱딴지’는 국화과 식물인 ‘돼지감자’를 가리킬 수도 있고, 전선을 전봇대에 매어 놓는 절연체인 ‘애자(碍子)’를 가리키기도 한다. 사람들은 ‘뚱딴지’라는 단어가 이렇게 전혀 다른 대상을 셋이나 가리킬 수 있다는 데에 흥미를 느끼고 왜 그렇게 사용되는지 궁금해 한다. 그러나 국어학이나 식물학 논저에서는 ‘뚱딴지’의 단어 구조나 동음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놓은 글을 찾을 수 없고,[1] 다만 신문 칼럼 몇 편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내용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뚱딴지’의 단어 구조를 분석한 신문 칼럼은 임소영(2007), 이계성(2012), 김평일(2017) 등이 있다. 임소영(2007)에서는 ‘뚱딴지’의 ‘뚱’이 ‘뚱하다’나 ‘뚱뚱하다’의 어근이고,[2] ‘딴지’는 ‘장딴지’의 ‘딴지’처럼 ‘불룩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본래 ‘뚱딴지’는 돼지감자의 별명으로 ‘뚱하면서도 울룩불룩한 모습’이나 ‘뚱뚱이(돼지)가 먹는 울룩불룩한 식물’을 뜻하는 이름이라고 해석했다.[3] 즉 돼지감자의 생김새나 쓰임새에서 ‘뚱딴지’라는 이름이

---

1) 임소영(1997), 盧載敏(1999), 황선엽(2014) 등과 같이 식물명(植物名)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나 조항범(2004)와 같은 어원 관련 연구에서도 ‘뚱딴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鄭台鉉・都逢涉・李德鳳・李徽載(1937), 임태치(1945), 이우철(2005), 유기억(2012), 구자옥・김창석・오찬진(2015) 등과 같은 식물학적 논저에서는 ‘뚱딴지’의 식물학적 특징이나 용도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이다. ‘애자(碍子)’를 가리키는 ‘뚱딴지’에 대한 단어 분석을 베푼 글도 전문적인 것은 없고 신문 칼럼만 있다.

2) 본고에서는 ‘어근(語根)’을 李翊燮(1975: 160)에서 제시한 “屈折接辭(語尾)와 직접 결합될 수 없으며 동시에 自立形式도 아닌 단어의 中心部”라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깨끗하다’의 ‘깨끗’, ‘영특(英特)하다’의 ‘영특’이 어근에 해당한다.

3) ‘뚱딴지’의 ‘뚱’은 ‘뚱하다’의 어근 ‘뚱’이고, ‘뚱뚱하다’의 어근 ‘뚱뚱’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뚱딴지(엉뚱한 사람)’의 의미에는 ‘뚱뚱하다’의 의미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임소영(2007)의 설명대로라면 ‘뚱뚱’은 ‘뚱딴지’의 뜻을 ‘뚱뚱이(돼지)가 먹는 울룩불룩한 식물’로 보았을 때 그 ‘뚱뚱이(돼지)’와 관련 있는 듯하다. ‘돼지감자’라는 명칭도 이 식물의 덩이줄기를 사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의미가 비유적으로 확장되어 엉뚱한 사람을 가리키게 된 것으로 설명했다. 이계성(2012)에서는 돼지감자의 땅속줄기가 울퉁불퉁 제멋대로 생겼기 때문에 '가운데가 뚱하게 생긴 단지'라는 뜻으로 '뚱딴지'라고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돼지감자의 생김새에서 '뚱+단지〉뚱딴지'로 단어가 형성되었다는 뜻이다. 김평일(2017)에서는 '못마땅하여 시무룩하다.'라는 뜻의 '뚱하다'와 키가 짧고 배가 나온 항아리를 가리키는 '단지'가 합쳐져서 '뚱딴지'가 되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고 언급했으나 이 견해의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이 칼럼들은 '뚱딴지'의 단어 구조를 직관적으로 이해는 했지만 '뚱딴지'가 '뚱+딴지(〈단지)'로 분석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뚱딴지'의 동음관계를 설명한 신문 칼럼 중에서 돼지감자를 뜻하는 '뚱딴지'에 대한 것을 먼저 살펴보자. 김평일(2017)에서는 돼지감자의 땅속줄기가 울퉁불퉁 가지각색으로 생긴 모양을 보고 '뚱딴지 같이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돼지감자에 '뚱딴지'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것이라고 보았다. '뚱딴지(엉뚱한 사람)'가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는 엉뚱함과 돼지감자의 울퉁불퉁한 생김새가 비슷하기 때문에 돼지감자가 '뚱딴지'라고 불리게 되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사람 이름→식물 이름). 김민철(2020)에서는 돼지감자의 꽃과 잎, 줄기는 국화를 닮았는데 땅속에 있는 덩이줄기는 감자 같이 생긴 모양이 엉뚱하게 느껴져서 '뚱딴지'라고 이름 지었을 것이라고 보았고, 한국농정 기자(2010)에서는 돼지감자가 아무 데서나 엉뚱하게 잘 자라나기 때문에 '뚱딴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임소영(2007)과 안도(2018)에서는 '뚱딴지'가 본래 돼지감자의 별명인데 '완고하고 우둔하며 무뚝뚝한 사람, 엉뚱한 사람'의 이미지가 돼지감자의 울퉁불퉁한 덩이줄기 모양과 비슷해서 그런 성질의 사람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뚱딴지'의 의미가 확장됐다고 설명했다(식물 이름→사람 이름). 이러한 임소영(2007)과 안도(2018)의 설명은 앞의 세 편의 글과 설명 방향이 반대이다.

람이 먹기보다는 주로 돼지가 먹는 사료로 사용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것이다.

이제 애자(碍子)를 '뚱딴지'로 부르는 현상에 대해 설명한 칼럼들을 살펴보자. 애자(碍子)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사기(砂器)로 만드는 것이 보통인데, 임소영(2007)에서는 이 절연체의 성질이 어떤 이야기의 흐름을 '엉뚱하게 끊는' 뚱딴지(엉뚱한 사람)와 유사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뚱딴지'라고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임소영(2007)은 돼지감자의 별명인 '뚱딴지'가 '엉뚱한 사람'과 '애자(碍子)'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그 쓰임이 확장되었다고 설명한 것이다(식물 이름→사람 이름→절연체 이름). 안도(2018)에서는 '뚱딴지'라는 별명을 가진 애자(碍子)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성질이 있는데 이와 비슷하게 '완고하고 우둔하여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멍청한 사람'을 가리켜 '뚱딴지'라고 부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절연체 이름 → 사람 이름). 안도(2018)은 엉뚱한 사람을 가리키는 '뚱딴지'가 돼지감자의 '뚱딴지'나 애자(碍子)의 '뚱딴지'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설명한 것이다.[4] 또한 이계성(2012)에서는 애자(碍子)가 '뚱하게 생긴' 모양 때문에 '뚱딴지'라고 불리게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5] 위와 같이 '뚱딴지'의 동음관계에 대해 사람의 '뚱딴지'에서 식물이나 절연체의 '뚱딴지'가 생겨난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 방향으로 단어의 쓰임이 확장된 것인지 견해가 나뉘어 있다.

이런 신문 칼럼을 통해 '뚱딴지'의 단어 구조와 동음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은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정확한 설명에 대한 갈증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펼쳐보게 되지만,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설명의 차이가 커서 또 한 번 고개를 갸웃하

4) 국립국어원의 '온라인가나다'에도 '애자(碍子)'와 '뚱딴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올라 있다. "뚱딴지라는 단어는 전기가 들어오고 나서 생긴 단어인가요? 아니면 예전부터 있던 단어인데, 절연설비가 뚱딴지처럼 생겨서 뚱딴지로 순화해서 쓰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뚱딴지'는 전기가 들어오기 이전에 있었던 단어로 보이나, 문의하신 기구를 '뚱딴지'로 이르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라는 대답이 달려 있다(온라인 가나다, 「[답변]뚱딴지」,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 2019.10.7., 〈https://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216&qna_seq=171795&pageIndex=1〉, 2021.3.29.). 이처럼 사람들은 애자(碍子)를 '뚱딴지'라고 부르게 된 이유와 '뚱딴지'가 애자(碍子)보다 먼저 있었던 단어인지 나중에 생긴 단어인지를 궁금해하기도 한다.

5) 여기서 애자(碍子)의 모양이 '뚱하게 생겼다'고 했을 때의 '뚱하다'는, 이계성(2012)에서 '뚱딴지'를 '가운데가 뚱하게 생긴 단지'라고 한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울퉁불퉁하거나 불룩하게 튀어나왔다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사전에는 '뚱하다'에 이런 뜻풀이가 없다.

게 된다. 이제 '뚱딴지'와 관련된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 2장에서 사전과 'X단지' 단어족(單語族)을 참고하여 '뚱딴지'의 단어 구조를 분석하고, 3장에서는 여러 사전에서 '뚱딴지'에 대해 베푼 뜻풀이를 분석하면서 이 단어의 동음 관계를 설명할 것이다.

2. '뚱딴지'의 단어 구조 분석

'뚱딴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어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사전의 뜻풀이에서 '뚱하다'와 '뚱딴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X단지' 단어족을 분석하여 '딴지'의 정체를 밝히고자 한다.

1) 단일어에서 복합어로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표제어 '뚱딴지'를 단일어로 표시했다. 이 두 사전에서 각각 '뚱딴지1'의 뜻풀이를 가져와 보면 다음과 같다.

(1) 『표준국어대사전』의 '뚱딴지'[6]

뚱딴지1

1. 완고하고 우둔하며 무뚝뚝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뚱.
2. 행동이나 사고방식 따위가 너무 엉뚱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예: 뚱딴지처럼 난데없이 무슨 소리야.
3. 심술 난 것처럼 뚱해서 붙임성이 적은 사람. =뚱보.

6) 『표준국어대사전』 웹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17729&searchKeywordTo=3〉, 2021.3.4.

(2)『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뚱딴지'[7)]

뚱딴지1

1. 엉뚱한 행동이나 생각. 또는 그런 행동이나 생각을 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예: 갑자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야. / 그 무슨 뚱딴지처럼 난데없는 소리냐? / 너는 모처럼 만났는데 계속 뚱딴지처럼 구는구나.

2. (기본의미) 우둔하고 무뚝뚝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예: 너는 왜 그렇게 뚱딴지처럼 가만히 앉아만 있어!

참고어: 뚱보

3. 살이 쪄서 뚱뚱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예: 영이는 방학 내내 먹기만 하더니 뚱딴지가 다 됐네!

유의어: 뚱보, 참고어: 땅딸보

4. (전기) 전선을 매거나 전기의 절연체로 쓰는, 사기로 만든 기구.

유의어: 애자(碍子)1

그러나 이 두 사전보다 먼저 편찬된 남한의 대사전(『국어대사전』(1973), 『금성판 국어대사전』(1991), 『우리말 큰사전』(1992))에서는 '뚱딴지'를 '뚱-딴지'로 표시하여 이 단어가 복합어임을 명시해 주었다.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과 그 이전 사전들 사이에 어떤 관점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 와서 '뚱딴지'를 단일어로 처리한 이유는 이 두 사전의 편찬자가 '뚱딴지'를 '뚱'과 '딴지'로 분석하기를 주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8)]

---

7)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제공한『고려대 한국어대사전』웹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b03d874ba20549b3b8b80a4aeaa726ae〉, 2021.3.4.

8) 이들 사전의 편찬자가 '뚱딴지'를 분석하지 않고 단일어로 제시한 이유에 대해 한 심사위원은 "사전 편찬 시점에서 공시적으로 '뚱'을 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심사위원은 그 사전 편찬자들이 어근 '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기보다는 '딴지'의 생산성이 적어서 '딴지'를 공시적으로 접사로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뚱'을 어근으로 분명히 인식했다면, '딴지'가 공시적으로 생산성이 적기는 하지만 '뚱'에 비해서는 의미적 주변부이므로 접미사로 인정할 수 있고 '뚱-딴지'나 '[±뚱-딴지]'의 분석을 보여줄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사전의 독자에게 '뚱딴지'보다는 '뚱-딴지'로 제시할 때 더 많은 정보를 제공

위 (1)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뚱딴지'의 '뚱'이 '뚱하다'의 어근 '뚱'임을 알 수 있다.[9] 『표준국어대사전』의 세 번째 의미항목 '심술 난 것처럼 뚱해서 붙임성이 적은 사람'이라는 뜻풀이에 '뚱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그 유의어로 '뚱보'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첫 번째 의미항목의 '완고하고 우둔하며 무뚝뚝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에 대해 그 유의어로 '뚱'을 제시해 놓았다. '뚱보'에 대해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뚱-보'로 복합어라는 표시를 했고,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뚱-보]로 형태분석을 해서 '뚱'을 어근으로 분석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러한 정보를 종합한다면 '뚱딴지'도 '뚱-딴지'로 분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딴지'의 정체를 밝힐 차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뚱딴지'와 비슷한 꼴을 갖추고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같은 구조의 단어들을 모아 놓고 관찰하면 그들의 관련성 속에서 단어 분석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X단지' 단어족과 '뚱딴지'

'뚱딴지'처럼 사람을 뜻하면서 '단지'로 끝나는 명사들이 많이 있다. '눈물단지, 얌전단지, 애물단지' 등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면서 '단지'를 '[딴지]'로 발음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형태론적으로 '뚱딴지'와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단지'로 끝나는 명사들을 "'X단지' 단어족(單語族)"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 단어족을 'X'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대강 다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10]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사전의 편찬자들은 이런 실용적인 이점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뚱딴지'의 단어 구조를 보여주기를 주저했다고 볼 수 있다.

9) 임소영(2007), 이계성(2012), 김평일(2017)도 '뚱딴지'의 '뚱'을 '뚱하다'의 '뚱'으로 분석했다.

10) 'X'에는 단지의 재료가 되는 '돌', 단지의 용도를 나타내는 '술' 등도 있으나 이런 부류는 매우 적다.

(3) ‘X단지’ 단어족의 ‘X’에 따른 분류

가. 단지에 담을 수 있는 물건: 꿀단지, 쌀단지, 약단지, 반찬단지①,[11] 보물단지①[12]

나. 사람의 특징: 눈물단지, 골비단지,[13] 야발단지,[14] 얌전단지, 반찬단지②[15]

다. 비유적으로 사람을 뜻하는 물건: 고물단지, 맹물단지, 보물단지②, 애물단지, 요물단지

(3)의 예들은 ‘X’와 ‘단지’ 사이에 사이시옷이 끼어들어 ‘보물단지[보물딴지]’처럼 ‘단지’가 주로 ‘[딴지]’로 발음된다.[16] 여기에서 분석되는 ‘단지’는 ‘목이 짧고 배가 부른 작은 항아리’를 가리키고,[17] 이 예들은 ‘X+단지’로 구성된 합성명사이다. ‘X’에는 (3가)의 ‘꿀, 약, 반찬’ 등과 같이 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을 가리키는 단어가 올 수도 있고, (3나)의 ‘골비, 야발, 얌전’과 같이 사람의 특징이나 성격을 가리키는 어근도 올 수 있다.[18] 또한 (3다)의 ‘X’는 ‘고물, 맹물, 보물, 애물, 요물’처럼 비유적으로 사람을 가리키면서 대부분 낮잡아 이르는 느낌이 드는 단어이다.[19]

---

11) 단어의 뜻풀이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표준국어대사전』의 것이다. 반찬단지: ① 반찬을 담아 두는 작은 항아리. ② 어떤 물건이 필요할 때, 그것을 언제든지 바로 갖추어 내어놓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12) 보물단지: ① 보물을 넣어 두거나 보물이 들어 있는 단지. ② 아주 귀중히 여기는, 가치 있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3) 골비단지: 몹시 허약하여 늘 병으로 골골거리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14) 야발단지: 야발스러운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15) ‘반찬단지②’의 ‘반찬’은 비유적인 의미로 ‘필요할 때에 내놓을 수 있는 물건’을 뜻하므로 ‘반찬’이 사람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보아 (3나)에 포함시켜 둔다.

16)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3)의 예 중에서 ‘골비단지’만 [골비단지]로 읽고 나머지 단어들은 [- -딴지]로 읽는다고 했다. 이 사전에서는 ‘오지단지, 수은단지’ 등도 [- -단지]로 읽는다고 했다. ‘X단지’형 단어족에서 ‘X’가 단지의 모양(‘골비’)이나 재료(‘오지’, ‘수은’)일 때에는 ‘X’와 ‘단지’ 사이에 사이시옷이 끼어들지 않아서 ‘단지’의 초성에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배주채 2003: 230-231 참고). 그런데 이 사전에서 ‘돌단지(돌로 만든 단지)’는 ‘[돌 : 딴지]’로 발음을 표기했는데 ‘돌’이 단지의 재료인데 경음화가 일어난 것은 이러한 경향과 다르다.

17) 이계성(2012), 김평일(2017)에서도 ‘뚱딴지’의 ‘딴지’가 항아리를 가리키는 ‘단지’에서 온 것으로 설명했다.

18) ‘야발’과 ‘얌전’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명사로 단어 자격을 주었으나 본고에서는 어근으로 본다. ‘야발’은 주로 ‘야발스럽다, 야발지다, 야발거리다’의 어근으로 사용되고 단어로 사용된 예는 찾기 어렵다. ‘얌전’도 ‘얌전하다, 얌전스럽다’의 어근으로 주로 사용되고 ‘얌전을 떨다/부리다/피우다/빼다’ 등의 연어 구성에서만 단어 자리에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단어가 아니라 어근으로 판단된다.

(3가)의 예들은 'X가 담긴 단지'라는 뜻으로 'X단지' 단어족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이다. (3나)와 (3다)의 예들은 비유적으로 사람을 뜻하는 단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3나)는 'X가 많아서 그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이란 뜻이고 (3다)는 'X와 같은 사람'이란 뜻인데, 이 두 부류의 단어들은 대부분 지시대상을 낮잡아 이르는 느낌을 띠면서 부정적 평가를 표현한다. (3가)의 예 중에서 '반찬단지'와 '보물단지'는 기본의미가 은유에 의해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확장되기도 했다.

(4) 사람을 가리키는 'X딴지'형 단어

괴딴지(怪--): 괴상하고 엉뚱한 행동이나 성질. 또는 그런 사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뚱딴지: 완고하고 우둔하며 무뚝뚝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말딴지: '떠버리'의 함북방언.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4)의 'X딴지'형 단어는 'X가 많아서 그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을 뜻한다.[20] 'X딴지'형 단어의 'X' 자리에도 '괴(怪), 뚱'과 같은 어근과 '말'과 같은

19) '보물단지'는 그 의미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3다)의 다른 단어들에서 느껴지는 '속되게 이르거나 낮잡아 이르는, 놀림조의 느낌'이 약하다. '얌전단지'도 긍정적 의미이지만 낮잡아 이르는 놀림조의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사전이나 인터넷에 예문이 없어 그 용법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20) '장딴지'는 (4)의 예처럼 'X딴지'형 단어이지만 그 지시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신체 일부라는 점에서 (4)의 단어들과 다르다. '장딴지'는 'X+딴지'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고, (3)의 예들과 같이 'X+단지'로 형성된 합성명사 '*장단지'에서 그 의미와 형태가 변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딴지'는 '장(醬)을 담아 두는 단지'를 뜻하는 '*장단지'가 형성된 후 그 의미가 비유적으로 확장되어 '종아리의 살이 불룩한 부분'을 뜻하게 되었고 단어 형태가 '장딴지'로 변했을 가능성이 높다.
'*장단지'가 '장을 담는 단지'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다가, '종아리의 살이 불룩한 부분'이 '*장단지'와 생긴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장단지'로 그 부분을 비유적으로 가리키게 됨에 따라 '*장단지'가 다의어인 단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이 두 의미의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그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사라짐에 따라 동음관계의 두 단어 '*장단지1(장을 담는 단지)'과 '*장단지2(신체 부위)'로 갈라졌을 것이고, 점차 '*장단지2'가 '*장단지1'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먼저 연상됨에 따라 세력 경쟁에서 밀린 '*장단지1'이 그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서 '*장단지2'와 다른 형태를 띠는 쪽으로 변화를 추구했을 것이다. 그래서 '*장단지1'은 '단지'와 비슷한 의미를 띠는 '종지'를 이용해 '장종지(경북 방언)'나 '간장 종지'라고 하거나 '된장 단지, 고추장 단지'처럼 '단지'에 담기는 내용물을 더 구체화시켜 표현하는 방법을 선택했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장단지2'는 더 이상 '단지'라는 의미와의 관련성이 인식되지 않아서 그 단어형도 소리나는 대로 아주 '장딴지'로 표기하게 되었다고

단어가 들어갈 수 있다. 이 예들은 (3)의 'X+단지' 구조에 의해 형성된 단어들이 '[X딴지]'로 발음되기 때문에 'X+단지'를 'X+딴지'로 재분석한 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의 '딴지'는 (3)의 'X단지' 단어족의 '단지'와 다르게 항아리의 의미는 없어지고 문법화되어,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를 형성하면서 낮잡아 이르는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로 분석된다.[21]

그런데 '뚱'이 『표준국어대사전』에 명사로서 '완고하고 우둔하며 무뚝뚝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즉 '뚱딴지1(무뚝뚝한 사람)'의 의미항목 1과 같은 의미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3다)의 예와 같이 무뚝뚝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 '뚱'이 '단지'와 결합하여 '*뚱단지'가 형성된 후 발음의 경음화를 반영하여 '뚱딴지'로 표기하게 된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3다)의 단어들은 'X단지'의 단어 형태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에서 '뚱딴지'만 'X딴지'로 단어형이 바뀐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괴딴지'가 '괴(怪) + 단지'의 합성으로 형성되었다면 '굇단지'로 표기했을 텐데 그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괴(怪)'와 '딴지'가 직접 결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뚱딴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형성되었다고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결국 '뚱딴지'는 '뚱하다'의 어근 '뚱'과 접미사 '딴지'가 결합되어 형성된 파생명사라고 할 수 있다. 이 '딴지'는 'X단지' 단어족의 구조 'X+단지'를 'X+딴지'로 재분석하여 얻어진 접미사로서, 'X가 많아서 그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을 뜻하는 명사를 만들면서 낮잡아 이르는 의미를 더한다.

할 수 있다(박재연(2019: 79)의 '보람', 南星祐(1990: 33)의 '힘(力)'도 기본의미보다 확장의미가 더 세력이 강해져서 기본의미는 잊혀지고 확장된 의미만 살아남은 예라는 점에서 참고가 된다.).

21)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괴딴지(怪－－)'를 어근 '괴(怪)'와 어근 '딴지'로 분석했다. 이 사전에서는 '딴지'가 '단지'와 맺은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딴지'가 접사로서의 생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접사가 아니라 어근으로 분석한 듯하다. 심사위원 두 분은 '딴지'가 접사로서의 생산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접미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러한 견해에서도 '딴지'를 어근으로 분석하게 된다. 그러나 '괴딴지'나 '뚱딴지'에서 단어의 의미중심은 '괴'와 '뚱'에 있고 '딴지'는 의미주변이라고 생각된다. 이때의 '딴지'는 '심술꾸러기'의 '꾸러기'와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서, 다만 생산성이란 면에서 '딴지'는 생산성이 낮고 '꾸러기'는 생산성이 높다는 점만 다르다고 판단되므로 '딴지'를 접미사로 분석한다.

3. '뚱딴지'에 대한 사전 뜻풀이 분석

이제 '뚱딴지'에 대해 사전에서 베푼 설명을 검토해 보고 '뚱딴지'의 뜻풀이를 보완해 보자. 먼저 '뚱딴지'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뜻풀이를 분석하고, 이 두 사전보다 앞서 편찬된 사전들에서 '뚱딴지'의 동음관계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보자.

1)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의 뜻풀이 분석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 '뚱딴지'의 설명을 차례대로 가져와 그 내용을 분석해 보자.

(5) 『표준국어대사전』의 '뚱딴지'

뚱딴지1

1. 완고하고 우둔하며 무뚝뚝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뚱.[22]
2. 행동이나 사고방식 따위가 너무 엉뚱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예: 뚱딴지처럼 난데없이 무슨 소리야.
3. 심술 난 것처럼 뚱해서 붙임성이 적은 사람. =뚱보.

22) 뚱뚱한 사람을 가리켜 "야, 뚱! 어디 가?"처럼 말하기도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뚱보'를 '1. 심술 난 것처럼 뚱해서 붙임성이 적은 사람. 2. 살이 쪄서 뚱뚱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의 다의어로 처리한 것처럼(『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뚱보'의 의미항목은 『표준국어대사전』의 '뚱보'의 의미항목 2를 1보다 앞에 뒀다.) 이 '뚱'도 '완고하고 우둔하며 무뚝뚝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과 '살이 쪄서 뚱뚱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을 모두 뜻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할 듯하다. 그러나 '뚱보'의 두 의미항목은 전혀 의미적 관련성이 없고, 의미항목 2번은 '뚱뚱보'의 준말이다. 따라서 '뚱보1(심술 난 것처럼 뚱해서 붙임성이 적은 사람)'과 '뚱보2(살이 쪄서 뚱뚱한 사람. '뚱뚱보'의 준말.)'로 나누어 동음어로 처리해야 합당하다. 그렇다면 '뚱'도 '뚱1(완고하고 우둔하며 무뚝뚝한 사람)'과 '뚱2(살이 쪄서 뚱뚱한 사람)'로 동음어 처리해야 할 것이다. 『조선말대사전』(1992)에서도 '뚱보'를 '뚱보1(성미가 둥한 사람)'과 '뚱보2(뚱뚱보)'로 나누어 동음어로 처리했다. 한편 『연세 한국어사전』에서는 '뚱보'를 '뚱뚱보'의 준말로만 설명한 것으로 보아 성질이 뚱한 사람을 가리키는 '뚱보'는 실제로 잘 쓰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뚱딴지2

『식물』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 줄기는 높이가 1.5~3미터이고 잔털이 있으며, 땅속줄기는 감자 모양이다. 잎은 마주나는데 윗부분에서 어긋나고 달걀 모양으로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8~9월에 노란 꽃이 핀다. 덩이줄기는 이눌린(inulin) 성분이 들어 있어 알코올의 원료로 쓰며 연하고 단맛이 있어 먹기도 하고 사료로도 쓴다. ≒국우2(菊芋), 돼지감자, 뚝감자. (Helianthus tuberosus)

뚱딴지3

『전기·전자』 전선을 지탱하고 절연하기 위하여 전봇대에 다는 기구.

(6)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뚱딴지'

뚱딴지1

1. 엉뚱한 행동이나 생각. 또는 그런 행동이나 생각을 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23]

   예: 갑자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야. / 그 무슨 뚱딴지처럼 난데없는 소리냐? / 너는 모처럼 만났는데 계속 뚱딴지처럼 구는구나.[24]

2. (기본의미) 우둔하고 무뚝뚝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예: 너는 왜 그렇게 뚱딴지처럼 가만히 앉아만 있어!

   참고어: 뚱보[25]

---

23) 이 뜻풀이에서 제시한 '엉뚱한 행동이나 생각'을 뜻하는 '뚱딴지'는 예문들 중에 없다. 예문들에 포함된 '뚱딴지같다', '뚱딴지처럼'의 '뚱딴지'는 행동이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는 것들뿐이다. 만약 '뚱딴지'가 '엉뚱한 행동이나 생각'을 뜻하는 예문을 제시할 수 없다면 이런 뜻풀이는 빼야 할 것이다.

24) 이 예문의 '뚱딴지'는 '엉뚱한 행동이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하고 무뚝뚝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 예문은 의미항목 2로 옮겨야 할 것이다.

25)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뚱보'의 의미항목 2를 '늘 심술이 나서 뚱한 사람'이라고 풀이해 놓아서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뚱딴지1'의 의미항목 2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유의어로 제시하지 않고 참고어로 제시한 것 같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뚱보'의 의미항목 2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뚱딴지1'의 의미항목 3과 같다. 그렇다면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은 『표준국어대사전』의 '뚱딴지1'의 의미항목 3을 지우고 그 의미를 '뚱보'의 의미항목 2로 돌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처리는 그만큼 '뚱딴지'가 '심술이 난 것처럼 뚱한 사람'이라는 의미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

3. 살이 쪄서 뚱뚱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예: 영이는 방학 내내 먹기만 하더니 뚱딴지가 다 됐네!

유의어: 뚱보, 참고어: 땅딸보

4. (전기) 전선을 매거나 전기의 절연체로 쓰는, 사기로 만든 기구.

유의어: 애자(碍子)1

뚱딴지2

(식물) 국화과에 속한 여러해살이풀. 땅속줄기는 감자 모양이며, 줄기는 높이 1.5~3미터이고 잔털이 있다. 잎은 마주나는데 윗부분에서는 어긋나서 해바라기 잎과 비슷하고, 9~10월에 노란 꽃이 핀다. 덩이줄기는 사료나 알코올의 원료로 쓰인다.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이다. 학명은 Helianthus tuberosus이다.

유의어: 돼지감자, 뚝감자.[26]

참고 정보: 〈표준어 규정〉 제3장 제5절 제26항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라는 규정에 따라 '돼지감자'와 '뚱딴지2'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뚱딴지1'의 '살이 쪄서 뚱뚱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의 의미와 '전선을 매거나 전기의 절연체로 쓰는 사기로 만든 기구'의 의미도 본래 이 '뚱딴지2'와 상관이 있을 듯 여겨지나 현대 국어에서는 이들 간의 의미적 연결이 끊어졌다고 보아 동음이의어로 처리하였다.[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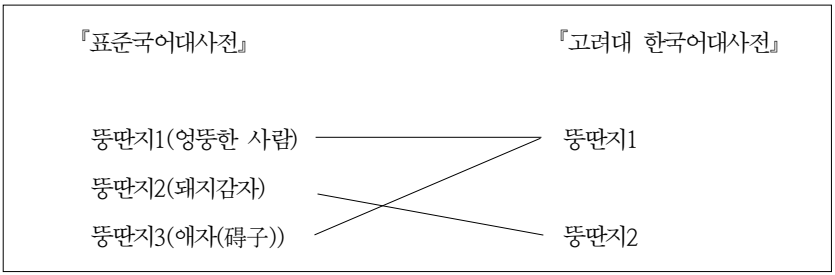
을 암시한다. 『연세 한국어사전』에서도 '뚱딴지'에 그런 의미항목은 없고 기본의미인 '무뚝뚝하고 우둔한 사람'만 들어 있다.

26) '뚝감자'의 '뚝'은 '뚝하다'의 어근 '뚝'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뚝보(무뚝뚝한 사람)'의 '뚝'도 마찬가지이다. '뚝보'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뚱딴지1'의 의미항목 1과 3, '뚱보'의 의미항목 1의 유의어라고 할 수 있다. '뚝하다'는 '뚝뚝하다'의 준말이고, '무뚝뚝하다'는 이 둘의 유의어이다. 넓게 보면 '뚱하다'와 '뚜하다'도 이들의 유의어이다.

27)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이 사전의 '뚱딴지1'의 의미항목 3과 4가 '뚱딴지2'와 관련 있을 듯하다고 했으나, 우리는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뚱딴지1'의 의미항목 1, 2, 4와 '뚱딴지2'가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뚱딴지1'의 의미항목 3인 '살이 쪄서 뚱뚱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은 '뚱딴지1'의 의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은 '뚱딴지'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표제어를 몇 개로 구분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부터 관점이 다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뚱딴지'를 그 의미를 기준으로 표제어를 크게 셋으로 나누어 '뚱딴지1(엉뚱한 사람)', '뚱딴지2(돼지감자)', '뚱딴지3(애자(碍子))'의 동음어로 처리했다. 그런데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은 『표준국어대사전』의 '뚱딴지1'과 '뚱딴지3'을 묶어서 하나로 처리하고, '뚱딴지2'를 따로 두었다. 이 두 사전에서 '뚱딴지'의 의미항목을 배열한 관계를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7)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의 '뚱딴지'에 대한 동음어 처리



『표준국어대사전』은 '뚱딴지1'과 '뚱딴지3'이 의미적으로 관련성이 아주 약해졌다고 판단하여 이 둘을 분리된 표제어로 처리한 것이고,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은 이 두 단어가 여전히 의미적 관련성이 분명하다고 판단해서 한 표제어 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그런데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뜻풀이에는 분명한 문제점이 하나 있다. 이 사전의 '뚱딴지1'에 있는 '3. 살이 쪄서 뚱뚱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예: 영이는 방학 내내 먹기만 하더니 뚱딴지가 다 됐네! 유의어: 뚱보, 참고어: 땅딸보'라는 의미항목은 빼야 할 것으로 보인다. 『(修正增補)朝鮮語辭典』(1942), 『국어 새 사전』(1958), 『국어대사전』(1973), 『우리말 큰사전』

(1992),『표준국어대사전』 등에서 '뚱딴지'의 뜻풀이에 그 유의어로 제시된 '뚱보'는 '성질이 뚱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지 '살이 쪄서 뚱뚱한 사람'을 뜻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원색도해 신국어대사전』(1974)와『고려대 한국어대사전』만 '뚱딴지'의 뜻풀이에 제시한 '뚱보'가 '뚱뚱보'를 뜻한다고 하고 있어서 다른 사전들과 어긋난 뜻풀이를 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다른 문헌 자료에서도 이런 의미로 사용된 '뚱딴지'는 찾을 수 없다.[28] 따라서 이러한 용법은 '뚱딴지'에 없다고 보고 의미항목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2) '뚱딴지'에 대한 동음관계 처리

앞 절에서『표준국어대사전』과『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 '뚱딴지'를 처리한 방식이 크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 두 사전보다 앞서 편찬된 사전들에서 '뚱딴지'의 동음관계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궁금해진다. 먼저 초기에 나온 사전들을 살펴보자.

(8)『朝鮮語辭典』(1920)

뚱딴지: 완고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별명.

(9)『조선말큰사전』(1949)

뚱-딴지1 ① 무뚝뚝하고 우둔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 ② 전기(電氣)의 절연체(絶緣體)로 쓰는 사기통.

뚱-딴지2

(식) 국화과(菊花科)에 딸린 다년생 풀. 브라질 원산(原産)으로 각지에

28) 네이버(NAVER)나 구글(Google) 검색에서도 '뚱뚱한 사람'을 가리키는 '뚱딴지'는 찾을 수 없고,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예문 449개,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hn〉, 2021.7.2.), 연세 20세기 한국어 말뭉치(예문 322개, 〈https://ilis.yonsei.ac.kr/corpus/#/search/TW〉, 2021.1.29.),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 말뭉치(예문 94개, 〈https://kcorpus.korean.go.kr/〉, 2021.1.29.),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예문 14개, 〈http://www.koreanhistory.or.kr/〉, 2021.7.2.) 등의 검색에서도 그러한 예는 찾을 수 없었다.

심는데, 키가 2-3m쯤 되고, 잎은 달걀 모양, 또는 긴 타원형으로 톱니가 있음. 위쪽의 잎은 호생(互生), 아래쪽의 잎은 대생(對生)이요, 땅속으로 덩이 줄기가 있음. 여름과 가을에 가지 끝에 두상화서(頭狀花序)로 누른 꽃이 핌. 관상용(觀賞用)으로 심는데 뿌리는 먹음.(Helianthus tuberosus, Linn. キクイモ[29]).

(10) 『큰사전』(재판, 1958)

애자(碍子. 礙子) (물) "뚱딴지1②"의 학술상 일컬음.[30]

『朝鮮語辭典』의 '뚱싼지'는 사람만을 가리키고 돼지감자와 애자(碍子)에 대한 뜻은 없다. 이 사전이 나온 시기에는 그저 사람만을 뜻하는 단어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선말큰사전』에서는 '뚱딴지'가 사람과 애자(碍子)를 가리키는 다의어이면서 돼지감자를 가리키는 동음어가 되었다. 엉뚱한 사람을 가리키는 '뚱딴지'가 애자(碍子)와 돼지감자를 각각 가리키는 이름으로도 그 용법을 확장한 것이다. 그런데 애자(碍子)는 '뚱딴지'와 한 표제어 안에 두고, 돼지감자를 가리키는 '뚱딴지'는 새 표제어로 따로 두었다.

위 (9)를 볼 때 애자(碍子)와 돼지감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조선말큰사전』이 편찬되기 전으로 해석할 수 있다.[31] 그 새로운 물건들에 이름을 붙일 때, 우리 조상들은 이미 사용하고 있던 '뚱딴지'를 빌려 썼다. '뚱딴지'가 가리키는 이 3가지 대상들은 그 속성상 비슷한 면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이름으로 불릴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조선말큰사전』에서는 애자(碍子)를 가리키는 '뚱딴지'가 엉뚱한 사람을 가리키는 '뚱딴지'와 의미상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뚱딴지1'에 이 두 의미를 포함시켰을 것이다. 애

29) 일본어 'キクイモ'[kikuimo]는 '국우(菊芋)'이다. 그러나 이 사전에 '국우(菊芋)'는 올라 있지 않다.

30) 『우리말 큰사전』(1992)에는 '애자(碍子)'가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고, '뚱딴지1②'로 가서 보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

31) 인터넷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뚱딴지'를 검색하면, '해바라기' 항목의 내용 중에 '돼지감자(일명 뚱딴지)'가 개화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B%9A%B1%EB%94%B4%EC%A7%80&ridx=0&tot=1〉, 2021.4.19.

자(碍子)가 가늘고 긴 전선에 뭉툭하면서 울퉁불퉁한 모양으로 달려서 전선에 흐르는 전기를 막는 역할을 하는 모습이 마치 우둔하고 무뚝뚝한 사람이 분위기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드는 모양과 비슷하기 때문에 애자(碍子)를 ‘뚱딴지’로 부를 수 있었을 것이다.[32] 돼지감자도 그 덩이줄기가 표면이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생겼다는 점과 우둔하고 무뚝뚝한 사람이 주위 분위기와 매끄럽게 화합하지 못하는 이미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돼지감자를 ‘뚱딴지’로 불렀을 것이다.[33] 이 두 경우 모두 속성의 유사성에 근거한 은유에 의해 명칭을 차용(借用)한 것이다.

『큰사전』보다 나중에 편찬된 사전들에서도 ‘뚱딴지’의 동음어들에 대한 처리 방식이 크게 둘로 나뉜다. 『동아 새국어사전』(2003), 『엣센스 국어사전』(2001)은 『표준국어대사전』과 같이 3개의 동음어로 처리했고, 『새 사전』(1961),[34] 『국어대사전』(1973), 『금성판 국어대사전』(1991), 『우리말 큰사전』(1992), 『ᄒᆞᆫ+ 국어사전』(2010)은 『고려대 한국어대사전』과 같이 2개의 동음어로 처리했다.[35] 『표준국어대사전』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사전들은 ‘엉뚱한 사람’과 ‘애자(碍子)’가 지시하는 대상이 다르고 그 의미적 관련성이 희미해졌다고 판단해서 이 두 의미항목을 분리해 동음어로 처리한 것이고, 『고려대 한국어대사전』과 같이 처리한 사전들은 ‘엉뚱한 사람’과 ‘애자(碍

32) 심사위원 두 분이 이런 설명이 잘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중 한 분은 (9)와 (11)에서 애자(碍子)가 ‘사기통’으로 뜻풀이되었다는 점에서 ‘단지’와의 관련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는데 이런 관점은 이계성(2012)와 같다. 그러나 우리는 임소영(2007)과 안도(2018)처럼 애자(碍子)의 기능과 우둔하고 무뚝뚝한 사람(뚱딴지)의 행동방식이 비슷하다고 인식하는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33) 김평일(2017)의 설명이 이와 같다. 임소영(2007), 안도(2018)은 이와 반대로 돼지감자의 ‘뚱딴지’에서 엉뚱한 사람을 가리키는 ‘뚱딴지’가 나왔다고 보았다.

34) 『새 사전』(1961)에서는 ‘뚱딴지1(무뚝뚝한 사람, 절연체)’과 ‘뚱딴지2(돼지감자)’로 동음어 2개로 처리했지만, 똑같은 편자(編者)들이 펴낸 『원색도해 신국어대사전』(1974)의 ‘뚱딴지’는 엉뚱한 사람과 애자(碍子)를 뜻하는 다의어로만 등재되어 있고, 돼지감자를 뜻하는 동음어 ‘뚱딴지’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35) 『조선말대사전』(1992)에는 ‘뚱딴지’에 ‘애자(碍子)’의 뜻만을 실었고, 『조선말대사전』(증보판, 2017)에서는 ‘엉뚱한 사람’과 ‘애자(碍子)’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과 같이 한 표제어 아래에 묶어서 다의어로 처리했다. 북한의 이 두 사전에는 ‘돼지감자’와 이것을 가리키는 ‘뚱딴지’는 등재되지 않았고, ‘뚝감자’는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조선말대사전』(증보판, 2017)에서 ‘뚱딴지’의 의미항목 1에 ‘애자(碍子)’를 두고 의미항목 2에 ‘엉뚱한 사람’을 두었다는 점에서 남한에서 편찬된 사전들과 의미항목 배열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子)'가 의미적 상관성이 여전히 분명히 있다고 판단해서 이 두 의미항목을 한 표제어 속에 넣어 다의어로 처리한 것이다.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처리 방식 중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의 것이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의 것보다 더 현실을 잘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동아출판사에서 펴낸 『국어 새 사전』(1958), 『동아 새 國語辭典』(1989), 『동아 새국어사전』(2003)에서 '뚱딴지'에 베푼 의미항목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 사전의 편찬자들이 '뚱딴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해 왔는지를 알 수 있다.[36] 이들 사전은 『표준국어대사전』과 같이 '뚱딴지'를 3개의 동음어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11) 『국어 새 사전』(1958)[37]

뚱-딴지 1 완고하고 무뚝뚝한 사람. 2 멋장이.[38] 3 뚱보.[39] 4 전기 절연체(絶緣體)로 쓰는 사기통.

---

36) 한 심사위원은 이러한 관찰이 의의(意義)가 있으려면 출판사가 같은지보다는 편자(編者)가 같은지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해 주었다. 『국어 새 사전』(1958)은 국어국문학회에서, 『동아 새 國語辭典』(1989)와 『동아 새국어사전』(2003)은 각각 동아출판사 편집국과 두산동아 사서편집국에서 편찬했는데 나중 두 사전의 편자는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동아 새 國語辭典』(1989)를 편찬할 때에는 같은 출판사에서 펴낸 『국어 새 사전』(1958)을 반드시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세 사전에서 의미항목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7) 이 사전에는 '돼지감자'와 '애자(碍子)'가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만 '뚱딴지'와의 관련성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38) 이 사전에서는 '멋-장이: 멋을 부리는 사람.'으로 설명했다. 그런데 『(修正增補)朝鮮語辭典』(1942)에서는 '뚱-딴지: ① 완고하고 뚱한 사람의 별명. ② 「맛장이」의 별명. ③ 「뚱보」와 같음.'으로 풀이되어 있고 '맛장이'는 '맛없는 사람의 별명. 맛보. 맛장수.'라고 했다. 여기서 '맛없는 사람'은 '행동이 싱거운 사람'이란 뜻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맛장수'를 '아무런 멋이나 재미 없이 싱거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설명하고 그 '맛장수'의 잘못된 표현으로 '맛보1, 맛장이, 맛집'을 들고 있다. '뚱딴지'의 전체 의미로 보았을 때에 『국어 새 사전』(1958)의 '뚱딴지'의 의미항목 2는 '맛장이'의 잘못으로 보인다.

39) 이 사전에서는 '뚱-보: 1 심술이 난 것처럼 뚱한 사람. 2=뚱뚱보.'로 되어 있다. 이 사전에서 '뚱딴지'의 의미항목 3은 '뚱보'의 의미항목 1과 관련된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修正增補)朝鮮語辭典』(1942)에서도 '뚱딴지'의 의미항목 3으로 '「뚱보」와 같음.'이 있지만, 이 사전의 '뚱보'에는 '성질이 뚱한 사람의 별명. 뚱딴지.'라고만 뜻풀이되어 있고 '뚱뚱한 사람'이란 의미는 없다. 이 사전에서는 '살이 많이 쪄서 몸이 뚱뚱한 사람'이라는 뜻풀이는 '뚱뚱보'에만 베풀었다.

(12)『동아 새 國語辭典』(1989)

뚱-딴지1 ① 우둔하고 완고하며 무뚝뚝한 사람. ② 엉뚱한 짓. ¶ -같은 소리 하는군.

뚱-딴지2 ① 국화과의 다년초. 땅속줄기의 끝이 굵어져 감자 모양의 덩이줄기가 됨. 줄기에는 잔털이 있으며, 초가을에 노란 꽃이 핌. 덩이줄기는 식용 및 가축의 사료나 알코올의 원료로 쓰임. 돼지감자. ② 〈노브 애자(knob 礙子)〉의 딴이름.

(13)『동아 새국어사전』(2003)

뚱-딴지1 ① 우둔하고 완고하며 무뚝뚝한 사람. ¶ 뚱딴지같이 제 자식을 보고도 말이 없다. ② 엉뚱한 짓. ¶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군.

뚱-딴지2 국화과의 다년초. 땅속줄기의 끝이 굵어져 감자 모양의 덩이줄기가 됨. 줄기에는 잔털이 있으며, 초가을에 노란 꽃이 핌. 덩이줄기는 식용 및 가축의 사료나 알코올의 원료로 쓰임. 돼지감자.

뚱딴지3 전선을 지탱하고 절연하기 위하여 전봇대에 다는 기구.[40]

(11)에서는 '뚱딴지'에 '무뚝뚝한 사람'과 '애자(碍子)'를 포함한 다의어로 처리했고 '돼지감자'를 가리키는 '뚱딴지'는 등재되지 않았다. (12)에서는 '뚱딴지1(엉뚱한 사람)'과 '뚱딴지2(돼지감자, 애자(碍子))'로, (13)에서는 '뚱딴지1(엉뚱한 사람)', '뚱딴지2(돼지감자)', '뚱딴지3(애자(碍子))'으로 의미항목

40) 이 사전에서 '애자(碍子)'를 가리키는 '뚱딴지3'은 '뚱-딴지'로 표시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가리키는 '뚱딴지1'과 '돼지감자'를 가리키는 '뚱딴지2'는 '뚱-딴지'로 표시했다. '뚱딴지3'에 하이픈 표시를 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고, '애자(碍子)'를 가리키는 '뚱딴지3'은 단일어로 처리할 만큼 '뚱'과 '딴지' 사이의 경계가 느껴지지 않는 것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뚱딴지3'도 '뚱딴지1'과 단어 구조가 같으므로 사전의 표제어로서 제시할 때에는 '뚱-딴지'와 같은 분석을 보여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을 나누었다. (12)의 '뚱딴지2'는 (11)에서 '뚱딴지1'의 의미항목에 포함되어 있던 '애자(碍子)'를 떼내어 '돼지감자'와 함께 둠으로써 '뚱딴지1'과 구별한 것이다. '애자(碍子)'의 별명인 '뚱딴지'가 '무뚝뚝한 사람'을 가리키는 '뚱딴지'와 의미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는 인식이 희미해져서 이 둘을 동음어로 처리하고자 했고, '돼지감자'와 '애자'가 똑같이 '뚱딴지'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된 처지 때문에 오히려 이 둘을 '뚱딴지2'에 함께 두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3)에서는 (12)의 '뚱딴지2'에 있는 '돼지감자'와 '애자(碍子)'가 더 이상 의미적 관련성이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의미항목을 분리시켜 동음어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무뚝뚝한 사람', '돼지감자', '애자(碍子)'가 모두 독립하여 각각 '뚱딴지1', '뚱딴지2', '뚱딴지3'으로 불리는 동음관계로 인식된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지금까지 사전들을 살펴본 결과 '뚱딴지'가 지시할 수 있는 대상은 '엉뚱한 사람', '돼지감자', '애자(碍子)'로 나누어지고, 처음에 '돼지감자'와 '애자(碍子)'에 '뚱딴지'라는 별명을 붙였을 때에는 의미적 관련성이 뚜렷하게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그 관련성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이 셋을 별개의 단어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았다. 따라서 사전에서 '뚱딴지'를 각 지시대상에 따라 표제어를 분리하여 '뚱딴지1(엉뚱한 사람)', '뚱딴지2(돼지감자)', '뚱딴지3(애자(碍子))'의 동음어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본고는 '뚱딴지'의 단어 구조와 동음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이 단어에 대해 본격적으로 국어학적 분석을 베푼 논문은 찾을 수 없었고 신문 칼럼 몇 편에서 이 단어에 대한 분석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신문 칼럼들에서도 '뚱딴지'의 '뚱'이 '뚱하다'의 어근 '뚱'이고, '딴지'가 작은 항아리의 '단지'와 관련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뚱딴지'가 서로 다른 3개의 대상을 가리킨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 중에

도 이 단어의 비유적 용법에 대한 이해가 들어 있었다. 그러나 이 설명들은 ‘뚱딴지’의 단어 구조와 동음관계에 대한 국어학적 분석과 근거가 부족했다.

본론에서 ‘뚱딴지’의 단어 구조를 분석하고 여러 사전의 ‘뚱딴지’에 대한 뜻풀이를 검토했다. 사전의 뜻풀이를 참고하면 ‘뚱딴지’의 ‘뚱’은 ‘뚱하다’의 어근 ‘뚱’임이 확실하다. 따라서 이 단어는 ‘뚱+딴지’로 분석되는 복합어로 판단할 수 있다. ‘X단지’형 단어족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 ‘딴지’는 ‘X단지’ 단어족이 ‘[X딴지]’로 발음된다는 정보가 반영되어 ‘X+단지’를 ‘X+딴지’로 재분석하면서 접미사로 분석된 것으로 판단된다. ‘딴지’는 주로 ‘괴(怪), 뚱’ 등과 같은 어근 뒤에 결합되어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를 파생시키는데 지시대상을 낮잡아 이르는 부정적 평가를 포함한다.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 ‘뚱딴지’를 몇 개의 표제어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뚱딴지1(엉뚱한 사람)’, ‘뚱딴지2(돼지감자)’, ‘뚱딴지3(애자(碍子))’의 동음어 3개로,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뚱딴지1(엉뚱한 사람, 애자(碍子))’, ‘뚱딴지2(돼지감자)’의 동음어 2개로 표제어를 제시했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엉뚱한 사람’과 ‘애자(碍子)’가 의미적 관련성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뚱딴지1’에 함께 넣어 두어 다의어로 처리한 것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 두 의미항목이 의미상 거리가 멀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각각 독립된 단어로 분리한 것이다.

초기의 사전부터 최근의 사전까지 ‘뚱딴지’의 의미항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살펴보면 『표준국어대사전』과 같이 동음어 3개로 구분한 부류와 『고려대 한국어대사전』과 같이 동음어 2개로 처리한 부류가 있다. ‘뚱딴지’가 최초로 등재된 사전인 『朝鮮語辭典』(1920)에는 ‘엉뚱한 사람’을 뜻하는 ‘뚱딴지’만 존재했고, 그 후에 나온 『조선말큰사전』(1949)에서부터 ‘돼지감자’와 ‘애자(碍子)’를 가리키는 ‘뚱딴지’가 등재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 새로 들어온 ‘돼지감자’와 ‘애자(碍子)’에 대해서 그 생김새와 속성이 ‘뚱딴지(엉뚱한 사람)’의 속성과 비슷하여 이것들에도 같은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지시대상의 속성이 유사함에 근거를 둔 은유가 작용하여 기존 명칭을 차

용(借用)한 명명(命名) 방식이다. ‘돼지감자’와 ‘애자(碍子)’에 ‘뚱딴지’라는 별명이 처음 생겼을 때에는 의미적 관련성이 분명하게 느껴졌겠지만 점차 그 관련성이 희미하게 인식되면서 ‘뚱딴지2(돼지감자)’와 ‘뚱딴지3(애자(碍子))’은 ‘뚱딴지1(엉뚱한 사람)’과 각각 분리되었을 것이다. 결국 현재는 이 세 ‘뚱딴지’가 동음관계로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표준국어대사전』처럼 이들을 동음어로 제시하는 것이 언어 현실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뚱딴지’라는 단어를 분석함에 있어서 ‘뚱딴지’와 ‘뚱하다’의 관련성, ‘뚱딴지’와 유의관계인 ‘뚱’, ‘뚱보’와의 관련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했다. 또한 ‘뚱딴지’는 ‘X단지’ 단어족의 관계망 속에서 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고 단어 형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단어 분석의 정보가 사전에 꼼꼼히 반영되고 유의관계를 맺는 의미항목들이 서로 바르게 연결되어 있을 때, 독자들이 ‘뚱딴지’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뚱딴지’의 동음관계에 대한 설명도 사전 뜻풀이에 간단히 해 준다면 사전에 대한 독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참고문헌

1. 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 편,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웹사전: https://ko.dict.naver.com/#/main).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웹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국립국어원 편, 『우리말샘』,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웹사전: https://opendict.korean.go.kr/main).

국어국문학회 편, 『국어 새 사전』, 5판, 동아출판사, 1958.

김민수 · 고영근 · 임홍빈 · 이승재 편, 『금성판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1.

金敏洙 · 洪雄善 編, 『원색도해 신국어대사전』, 語文閣, 1974.

남영신 편, 『ᄒᆞᆫ+ 국어사전』, 개정2판, 성안당, 2010.

네이버(NAVER) 웹사전의 국어사전(https://dict.naver.com/).

동아출판사 편집국 편, 『동아 새 國語辭典』, 동아출판사, 1989.

두산동아 사서편집국 편, 『동아 새국어사전』, 제4판, 두산동아, 2003.

文世榮 著, 『(修正增補)朝鮮語辭典』, 朝鮮語辭典刊行會, 1942.

민중서림편집국 편, 『엣센스 국어사전』, 民衆書林, 2001.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 『조선말 대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2.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2017.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1998.

李熙昇 編, 『국어대사전』, 20版, 民衆書館, 1973.

조선어학회 편, 『조선말큰사전』, 을유문화사, 1949.

朝鮮總督府 編, 『朝鮮語辭典』, 京城 : 大和商會, 1920(影印本, 亞細亞文化社, 1976).

한글학회 편, 『큰사전』, 재판, 을유문화사, 1958.

_____,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1992.

홍웅선 · 김민수 편, 『새 사전』, 4판,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1961.

2. 논저

구자옥 · 김창석 · 오찬진, 『식물의 쓰임새 백과』 下(식용 · 구황용 · 약용 고전편), 자원식물연구회, 2015.

南星祐, 「國語의 語彙 變化」, 『국어생활』 제22호, 국립국어연구원, 1990, 20~41쪽.

盧載敏, 「현대국어 식물명의 어휘론적 연구」, 國語硏究 제158호, 國語硏究會, 1999.

박재연, 「일상 언어의 은유와 환유」, 『새국어생활』 제29권 제4호, 국립국어원, 2019, 69~88쪽.

배주채,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2003.

유기억, 「감자를 닮았지만 소속이 다른 똥딴지」, 『솟은땅 너른땅의 푸나무』, 지성사, 2012, 542~546쪽.

이우철, 『한국 식물명의 유래』, 일조각, 2005.

李翊燮, 「國語 造語論의 몇 問題」, 『東洋學』 5, 檀國大 東洋學硏究所, 1975, 155~165쪽(李秉根 · 蔡琬 · 金倉燮 編, 國語學講座 3 『形態』, 太學社, 1993, 25~43쪽에 재수록됨).

임소영, 『한국어 식물이름의 연구』, 한국문화사, 1997.

임태치, 『조선의 구황식물과 식용법』, 경도서적, 1945(구자옥 · 김장규 · 한상찬 편역, 『구황방 고문헌집성』

(제2권 일제강점기의 구황방), 농촌진흥청, 2010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함).

鄭台鉉・都逢涉・李德鳳・李徽載 共編, 『朝鮮植物鄕名集』, 朝鮮博物研究會, 1937(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고문헌 디지털콘텐츠로 구축한 사진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 <https://ap01-a.alma.exlibrisgroup.com/view/UniversalViewer/82SNU_INST/12749944610002591?token=eyJhbGciOiJSUzI1NiJ9.eyJpc3MiOiJBbG1hIiwianRpIjoiQlp6WFZmaUVlOFk2YWxSbldWMUNrdyIsImV4cCI6MTYyOTE4MjcxNSwiaWF0IjoxNjI5MTgwOTE1LCJ1c2VyX2lkIjoiMzQ2MDgzMDMyMDAwMjU5MSJ9.nXlQo-4NVFi7VHVvV_L1AlOyX_L-TfaRU_icg5D2M3LFUFJzdXOgYrUeh_RblDCkpUFjJBAgv82Y6SiMUlE9TfJFfIuFnD22v9FHEPOhp2-UWOuBRxPg-mzpDYaoNIsURzLjeJyq82uMhjNXwORSAQCcPQlqgiEqMkc6j6ojMfi8PlhGlr6qHUZG3R2oFxlJ12qlzshazBK1Op5kWZGs2GTdww4htXjaPaqxYL_sYCR3mPrLzdjxVE5-Ik0zLddhUy4ZLHsYYk74bbzD5qifTPF6UW0chWCloKAjYvSCiy3pdpai8Yj3Mmq1zBE_kj77Rnm551LI2TPmmzXSeR7cDQ#?c=0&m=0&s=0&cv=0&xywh=-1206%2C6%2C3989%2C2016>, 2021.8.17.).

조항범, 「딴지」, 『정말 궁금한 우리말 100가지』 1, 예담, 2004, 56~59쪽.

황선엽, 「식물명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정신문화연구』 제37권 제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71~94쪽.

3. 신문 칼럼 및 인터넷 자료

김민철, 「뚱딴지의 유래를 아시나요」, 『조선일보』, 2020.10.6., <https://www.chosun.com/culture-life/2020/10/06/33XRIBPA2BBJLNXFDJQEHOYR2M/>, 2020.12.26.

김평일, 「뚱딴지」, 『제주환경일보』, 2017.2.16., <http://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89861>, 2020.12.26.

온라인 가나다, 「[답변]뚱딴지」,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 2019.10.7., <https://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216&qna_seq=171795&pageIndex=1>, 2021.3.29.

안 도, 「뚱딴지와 꺼벙이」, 『전북일보』, 2018.11.29., < https://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78>, 2020.12.26.

이계성, 「뚱딴지」, 『한국일보』, 2012.10.3., <https://m.news.zum.com/articles/3922591>, 2020.12.26.

임소영, 「뚱딴지」, 『한겨레신문』, 2007.2.20.,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91664.html>, 2020.12.26.

한국농정 기자, 「뚱딴지」, 『한국농정신문』, 2010.11.29.,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2757>, 2020.12.26.

4. 인터넷 검색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https://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List.do?mn_id=216).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hn).

한국역사종합정보센터,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터넷판(http://encykorea.aks.ac.kr/).

Analysis of the Word Structure and Dictionary Definitions of 'Ttungttanji(뚱딴지)'

Hong Seok-ju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word structure and dictionary definitions of 'ttungttanji(뚱딴지)' and explain homonymy. 'Ttungttanji(뚱딴지)' is usually used to mean "blunt person", and is also used as a name for "pork potatoes(돼지감자)" and "insulators(애자, 碍子)". 'Ttungttanji(뚱딴지)' is analyzed as a derived word combining the root 'ttung(뚱)' of 'ttunghada(뚱하다)' and the suffix 'ttanji(딴지)'. 'Ttanji(딴지)' was obtained by reanalyzing the word structure 'X+단지' of the 'X단지' word family as 'X+딴지'. If you look at the process of changing about the meanings of 'ttungttanji(뚱딴지)' in the dictionaries, 'ttungttanji(뚱딴지)' was first, which means "blunt person", and 'ttungttanji(뚱딴지)' referring to "pork potatoes" and "insulators" later appears. They were given the same name because the attributes and appearances of 'insulators' and 'pork potatoes' are similar to those of 'ttungttanji(뚱딴지)'. This is a metaphor based on the similarity of the attribute and borrowed the name. Now that the meaning distance between the three 'ttungttanji(뚱딴지)'s has become far distant, it is desirable to treat them as homonyms in the dictionary.

Key words : ttungttanji(뚱딴지), word structure, homonymy, ttunghada(뚱하다), dictionary definitions, 'X단지' word family, reanalysis, metaphor

논문투고일 : 2021년 7월 23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8월 12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8월 19일

* Lecture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